

# 北方系服飾에의 關心과 服飾史教育

— 滯美 1年의 報告를 兼하여 —

李 京 子\*

## “History of Costume” in Education

Kyung Ja, Lee

<目 次>	
I. 序 言	IV. 服飾史教育의 課題와 展望
II. 美國의 服飾教育과 服飾史	V. 結 言
III. 北方系服飾에의 關心	

### Abstract

This is a report of author's stay in the U.S. as an exchange scholar. During her stay from Dec. 1979 to Dec. 1980, she participated in costume studies at Pratt Institute, New York City and looked into materials of North Asian historical costumes.

The author notes that the curriculum of costume studies in the U.S. place weight upon costume history, e.g., the master's program in costume studies of New York University requires 18 points in history courses out of 54 points required for the degree. The author also notes the leading role of the Costume Institute,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s in performing research works for the studies.

As to the study of North Asian costumes, the author's work in the U.S. has been somewhat disappointing. She points out difficulties for a Korean researcher to access to basic materials which are scarce outside of China and Russia. She asserts, however, the comprehension of the history of North Asian costumes as a whole is essential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ancient Korean costumes.

The author insists the costume history courses in Korean colleges are not appropriate as a part of costume studies. Noting the costume education in the U.S. clearly aims at the training of costume professions, the author proposes the objective of costume education in Korea be redefined, and the teaching of “History of Korean Costumes” be reconstituted as to be suitable for it.

### I. 序 言

필자는 1979年末에서 1981年初까지의 滿 1年

동안 美國 뉴욕에 있는 美術教育의 名門大學 Pratt Institute의 exchange scholar로서 服飾教育에 參與할 機會를 가졌다. 美國 服飾産業의 中心인 뉴욕에 자리하여 有能한 服飾 專門人

\* 梨花女子大學校 裝飾美術科 助教授

의輩出로 定評이 있는 同大學 Department of Fashion Design에서의 1年은 美國 服飾教育의 理念과 實際를 볼 수가 있어 더없이 有益하고 愉快한 것이었다. 특히 服飾史와 服飾史 教育分野에 있어서는 主任教授인 Mrs. Madeline Darling과 Metropolitan Museum of Arts의 Costume Institute責任者(Curator) Mrs. Stella Blum<sup>(1)</sup>의 格別한 愛顧를 입어 얻는 바가 더욱 많았다. 이 글은 그 동안의 見聞과 資料의 一端을 整理한 것으로, 美國行의 目的이 服飾教育에의 參與와 「北方系服飾」史料 수집에 있었음을 감안하여, 먼저 美國 服飾教育의 現況과 服飾史研究의 一端을 說明하고, 나아가 우리 服飾教育의 課題와 展望에 言及했다. 이 글을 準備할 즈음에, 恩師 柳喜卿 先生님의 華甲을 紀念하는 階梯를 당하여, 이 報告文으로 頌壽를 대신하게 되니, 20여년에 걸친 學恩을 생각하는 感懷가 자못 깊다.

## II. 美國의 服飾教育과 服飾史

美國에서의 服飾教育은 大學마다의 重點設定과 地域環境에 따라 curriculum에 若干의 差異를 볼 수가 있으나, 그 基礎素養으로 服飾史를 重視하는 點은 모두가 共通된다. 尖端的이라고 할 뉴욕의 Parsons School of Design과 Pratt Institute에서 보면 美術學士課程인 undergraduate course에서는 第2學年 1~2學期에 걸쳐 4學點의 比重을 두고 있으니, 4年間 總學點 140點의 약 3%이며, 第2學年 取得學點 40學點의 10%이다. 이 學點配定의 意圖는 第1學年에서 準備教育을 마치고, 第3~4學年에서의 實技教育(studio work)을 豫備하는 課程으로 服飾史를 按配한 것이라고 보아진다.

服飾史의 碩士課程은 뉴욕대학교(N.Y.U.)의 Master of Arts in Costume History and Design이 代表的이다. 이 코스 curriculum은 總 54學點 중 18學點을 服飾史에 配定하여 實技 9學

點보다 큰 比重을 두고 있다.

이중 Parsons의 服飾史 科目은 各 2學點(週 4時間)의 “Art in Fashion”과 “History of Illustration”으로 構成되며, 前者는 博物館, 圖書館, 畫廊에서의 research를 주로 한다. Pratt에 있어서는 “History of Costume”을 1~2學期 各 2學點을 配點하나, 1學期는 Blanche Payne의 “History of Costume”을 교재로 한 講義이며, 2學期는 博物館에서의 research work이다.

반면 뉴욕대학교의 碩士課程에서는 “History of Costume I~II”에서 14世紀以後 西洋服飾史, 同 “III”에서 西洋 이외(non-western) 地域을 다루고, 同 “IV”에서 한 時代의 服飾을 彫刻·建築·裝飾美術 등 다른 장르의 美術과 比較 考察한다.

이들 服飾史 코스에서 共通되게 두드러진 特徵은 Metropolitan Museum of Art의 Costume Institute가 擔當하는 役割이다. Costume Institute는 17世紀 이후 4世紀, 地理적으로는 5大洲에 걸친 40,000件의 服飾 collection과, 방대한 文獻史料를 所藏하고 있으며, 이를 學生과 研究者를 위해 公開하여 服飾史研究와 教育의 中樞 구실을 한다. 이와 함께 全世界 有名 博物館과의 服飾 交換展示를 열어 研究와 學習의 幅을 더욱 넓히고 있다.<sup>(2)</sup>

各 大學의 服飾史 코스가 博物館에서의 research 中心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Costume Institute가 뛰어난 施設과 協調體制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 進行狀況을 보면 다음과 같다.

Costume Institute는 지도교수의 事前協議를 받아 必要한 item을 準備한다. 참여자들은 實物 取扱에 관한 細細한 說明이 있는 다음 各者 원하는 實物을 택하게 된다.

Research의 對象은 全世界的이라고 할만하다. 東·西洋, 特定地域의 區別 없이 服飾이라는 하나의 命題 아래 全世界의 服飾을 鳥瞰한다는 態度다. 다만 research schedule에 따라, 時間마다

(1) Master of Arts Degree in Costume History and Design, 뉴욕대학교의 창설자로서 美國 服飾學界의 중진이며, 著書로서 “Harpers Bazar” 등이 있다.

(2) 筆者가 滯美 중 Metropolitan Museum은 19世紀 오스트리아의 宮中衣裳을 網羅한 Habsburg's Costume 展을 열어 耳目을 끌었다. Wien博物館 所藏인 展示品 중에는 舊韓末 우리나라에서 Habsburg皇室에 進 물했다는 우리나라 甲冑가 包含되어 있어 異彩를 띠었다. 거의 같은 무렵 뉴욕의 Asia House는 中國의 Dragon Robe(龍袍) 特別展示會를 열었다. 이것은 Toronto博物館 所藏品의 交換展示였다.

提供되는 實物은 地域的으로 가깝거나 類型的으로 비슷한 옷이 그룹지어진다. 例컨대 첫날 提供된 옷은 페르샤(Persia), 코카서스(Caucasus), 터키스탄(Turkestan)의 西 Asia服飾, 다음 時間에는 아라비아(Arabia), 티벳(Tibet), 인도(India)의 西南 Asia, 그 다음은 中國, 日本, 香港의 東Asia였다. 이렇게 全世界 服飾을 살펴보고 20世紀 有名 디자이너의 作品인 “Designers’ Collections”로 한 학기가 끝난다.<sup>(3)</sup>

每時間 實物이 配布되고 나면 담당 교수는 그 服飾들의 特徵을 簡單하게 說明한다. Costume Institute는 實物 提供 이상의 干與는 않는다.

참여자들은 自己가 選擇한 實物의 디테일(detail)을 스케치하고 色을 加한다. 着實한 描寫技法이 要求되는 作業이다. 다음에는 옷을 實測하고 展開圖를 그린다. 하루 2時間으로는 빠듯한 作業이기 때문에 完成은 課外作業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實物 考察이 끝나면, 그 服飾에 대한 文獻調査가 圖書館에서 進行된다.

이같은 research方式은 “History of Costume” 講義의 補完으로서뿐이 아니라 服飾教育의 한 核心을 이루고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다. 그 效用 또한 여러가지다.

첫째, 體系的인 服飾史의 흐름을 깨닫게 한다.

그것은 氣候風土와 民族에 따른 服飾 特性과 그 多樣性 속의 系統性을 確認케 해준다.

둘째, 服飾의 構造와 技法의 概念을 明確하게 한다.

셋째, 패션 디자인의 새로운 모티프를 찾게 한다.

네째, 服飾 research의 方法을 體得케 한다.

이와 같은 research方式은 服飾 學徒에게 多樣

한 職種(career position)<sup>(4)</sup>이 열려 있는 美國의 實情에 잘 合致된 것이다. 關係者들의 말을 들으면 30~40年前만 해도 服飾史教育은 講義中心의 編年史的인 것이었으나 專門職業人을 輩出한다는 教育目標가 더욱 明確하게 定立됨을 따라 이를 脫皮하기에 이르렀다는 說明이었다.

### Ⅲ. 北方系服飾에의 關心

위와 같은 research에 參與하면서, 服飾史學徒의 한 사람으로서, 필자가 눈여겨 본 것은 提供된 實物 중에 우리 服飾과 같은 基本型式의 服飾이 많고, 그것이 생각보다 널리 分布되어 있는 것이었다. 蒙古나 티벳服은 그러려니 싶은 것이지만, 그런 例가 西Asia와 南러시아에서 까지 發見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當然히 提起되는 물음은 이 服飾이 우리 服飾과 어떻게 聯關되느냐는 것이다. 이 물음은 필자가 服飾史에 뜻을 둔 이래로 품었던 「北方系服飾」에의 關心과 相通하는 것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이렇듯 「北方系服飾」에 대한 資料 탐색은 이들 實物의 스케치로부터 시작한 셈이 되었다. 그러나 정작 本格的인 作業을 시작하고는 곧 일의 어려움을 깨달았다. 이 면에서의 成果는 滿足스러울 수 없었으나, 歸國 후의 見聞으로는 近來 우리 學界一部의 動向이 필자가 품었던 年來의 關心과 方向이 一致하는 듯하므로, 滯美 중 資料 수집과정에서 필자가 느낀 어려움을 여기 적어둠도 뜻이 없지는 않을 것 같다.

「北方系服飾」에의 關心은, 要컨대 우리 上代 服飾을 「北方系胡服」이라고 할 때, 그 源流가

(3) Designers' Collection 중 81년 學期에 提供된 作品들의 Designer

○ Yves St.-Laurent(1958)  
○ Bannie Cashin(1967)  
○ Norell(1973)  
○ Clair MaCartlell  
○ Valentino(1975)  
○ Pierre Cardin(1970)

○ Paul Poiret  
○ Coco Chanel  
○ Vionnet  
○ Christian Dior  
○ Christobal Balenciaga  
○ Mary Quant

(4) The Union of Independent Colleges of Art가 發行한 “Career Resource List for Visual Artists”, 1979 年版은 服飾學科 卒業生의 多樣한 career position을 망라하고 있다. 博物館, 政府와 公共機關, 服飾産業, 教育에 걸친 그 職種은 다음과 같다. ① Fashion Designer ② Fashion Specialist(博物館, 古衣裳製作, 등) ③ Fasion Display Specialist(服飾展示 등) ④ Fashion Writer/Editor/Critic(新聞放送의 服飾記者, 評論 등) ⑤ Fashion Co-Ordinator(服飾 P.R. 등) ⑥ Designer/Illustrator(pattern과, drawing 등) ⑦ Fashion Design Teacher ⑧ Worker within Fashion trade 外 2種.

어디 있느냐는 疑問과, 우리와 近緣關係에 있는 服飾을 考察함으로써 우리 服飾의 實質을 밝히자는 것에서 出發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먼저 留意할 것은, 그와 같은 關心은 比較的 새로운 考古學分野에 關係되고 엄청나게 넓은 地域, 많은 民族에 걸친다는 點이다. 더구나 이 分野의 研究는 蘇聯學者들의 主導 아래, 우리에게는 政治적으로 封鎖된 地域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一次資料에의 接近이 매우 어렵다.

이와 같은 어려움은 우리 固有服飾이 「北方系胡服」이라고 할 때의 含蓄을 생각해 보는 것으로도 理解할 수가 있다.

古代史學에서 「北方」이라 함은 로마, 페르샤, 中國 등 古典帝國 北쪽의 草原地帶를 指稱한다. 이 文化圈域은 헝가리로부터 滿州의 興安嶺까지 東西 7,000km에 뻗어 있다. 이보다 더 北쪽의 凍土地帶는 極北文化로 區別되는데, 「北方」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나 中國의 北쪽만을 일컫음은 아닌 것이다.

「胡服」이란 말도 嚴密하게 따지면 좀 漠然하다. 中國사람이 말하는 胡服은 中國 이외의 服飾이란 뜻이니, 지금의 「洋服」과 쓰임새가 비슷하고, 당초에는 北方塞外民族의 服飾을 指稱했으나 後漢代 이후에는 西域服을 가리키는 말로 轉化하고 있음도 留意해야 한다.<sup>(5)</sup>

이렇게 「北方系胡服」이란 말 自體가 語感은 限定的인 듯하지만, 실상은 그 뜻이 滿足스러울 만큼 限定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를 좀더 究明하려고 들면 北유라시아 考古學의 幅넓은 理解와 研究가 要求된다. 그것은 한 服飾史學徒로서는 감당키 어려운 점이다. 그렇다고 「北方系胡服」을 上衣下袴로만 理解하고 各 民族服飾의 樣式 比較를 試圖하면, 廣漠한 유라시아草原을 定處 없이 헤매는 꼴이 되기도 한다. 앞서 Costume Institute의 實物에서도 이들을 歷史적으로 어떻게 聯關시킬지는 그저 막막하기만 하던 것이다.

더구나 유라시아內陸에는 헤일 수 없이 많은 民族이 登場하고 있다. 그중에는 現住하는 民族도 있지만, 考古學的으로 確認되지 않은 人種도 있다. 이들을 大別하면 유로피오이드(Europeoid)

와 몽골로이드(Mongoloid)로 나뉘고, 유로피오이드는 다시 ① 인도-파미르(Indo-Pamir)型 ② 中央아시아형 ③ 안드로노보(Andronovo)型으로, 몽골로이드는 ① 古시베리아(Siberia)型 ② 滿州型 ③ 아시아中部型으로 區分된다. 그러나 이들은 끊임없이 移動하고 興亡과 混血을 거듭하고 있다. 이 事情은 유럽까지 猛威를 떨쳤고, 戰國時代 中國에 袴褶을 傳受한 匈奴(Huns)가 유로피오이드인지 몽골로이드인지 學界에 定說이 없는 것으로도 짐작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地域 各 民族의 服飾史는 編年조차 不可能한 형편이니, 우리 上代服飾과 같은 年代의 服飾을 確認·比較할 것은 期待하기가 어렵다.

다만 이 地域은 騎馬遊牧文化라는 特性이 共通된다. 그 始原을 B.C. 2千年代에 登場한 스키타이(Scythian)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 上代服飾의 源流를 스키타이의 上衣下袴 左衽에서 찾는다는 發想이 可能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 考古遺物에서 스키타이의 要素가 發見된다고 하여 우리 上代文化를 스키타이文化의 末流로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 服飾의 源流를 곧장 스키타이文化에 갖다 댈 것은 飛躍的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그런 發想을 延長한다면 下袴를 처음 着用했다는 點에서 페르샤를 學論해야 할 것이므로, 論議의 焦點을 잃게 된다.

이렇게 본다면 유라시아內陸에서 우리 服飾의 源流를 찾는다는 뜻에서는, 「北方系服飾」에의 關心은 學問的 成果를 期待하기가 어렵다. 적어도 現在로서는 그렇다는 것이, Costume Institute의 圖書室에서 느낀 實感이다.

그러나 「北方系服飾」을 「北方系服飾」대로 考察한다는 뜻에서라면, 「北方系服飾」에의 關心은 韓國服飾史를 살찌우게 할 것이 틀림 없다. 蒙古服飾이건, 티벳服飾이건, 그 實物을 接해 보고는 이들이 우리 服飾과 近緣關係의 옷임을 한 눈에 알아 볼 수가 있으니, 이들의 特性을 밝혀 우리 것과 比較한다는 學問的 意義는 결코 작지가 않을 것이다.

蒙古服飾의 형태(type)와 재단(cut)을 分析한 Henry Harald는 그의 著書 "Mongol Costume"의 結論으로 그와 같은 옷의 近緣關係와 近緣關係 옷들의 比較研究가 必要함을 밝히고 있다. 그

(5) 王國維, 胡服考.

는 蒙古服의 上衣를 판초 카프탄(Poncho-Caftan)과 클로크 카프탄(Cloak-Caftan)으로 分類한 뒤 이렇게 쓰고 있다.

“그와 같은 판초 카프탄은 韓國, 日本, 투란(Turan), 東티키와 티벳에서도 볼 수가 있다. 이런 카프탄형은 北部, 中央, 東部 Asia에 걸친 地域에서 發見되며, 클로크 카프탄은 北部 및 西 Asia에서 發見된다.……(研究 結果에 의하면 蒙古에 이르러) 強力한 두 이웃 즉 中國과 티벳의 影響이 합쳐졌다. 中國과 티벳에서 보면 蒙古는 周邊地域이니, 服飾形態의 中心地에서는 그것이 사라진 뒤에도 그것이 그대로 남은 것이다. 특히 이 點에서 蒙古服飾은 興味가 있다.……그토록 色彩가 多樣하고 裁斷이 單純한 蒙古服飾은 매우 興味있는 問題를 提起하거나 이 問題에 대한 論議는 蒙古國境을 훨씬 넘어선 服飾을 比較 研究하는 일과 關聯이 된다.”<sup>(6)</sup>

이 記述에서 「蒙古服飾」을 「韓國服飾」으로 代置해 놓고 想像하는 것만 해도 興味가 津津하지만, Harald가 提示한 比較 研究를 韓國服飾史의 視角을 가지고 進行함직한 것이다.

그와 같은 研究가 「北方系服飾」을 쉬 理解할 수 있는 우리나라 服飾史學徒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效果的임은 말할 나위도 없는데, 그런 比較 研究가 이뤄짐으로써,

- 첫째 : 우리 服飾 특히 上代服飾의 理解를 돕고,
- 둘째 : 같은 系統服飾의 地域差를 把握하여 우리 服飾의 變動要因을 多樣하게 把握하며,
- 셋째 : 中國服飾의 影響이 나타난 樣相의 差異에서 그것이 우리 服飾에 미친 影響을 좀더 明確하게 規定할 수가 있을 것이다.

다만 이 研究는 우리와 近接·近隣關係 服飾에 어느 정도 局限하는 것이 研究의 焦點을 모은다는 뜻에서 合理的일 것 같다. Harald가 指摘한 카프탄의 分布에서도 그런 示唆를 얻을 수가 있거나, 그 範圍는 北유라시아 古代史學의 分類를 따른 몽골로이드의 服飾, 이른바 스키타이—이란文化와 스키타이—시베리아文化 중 後者의 服飾이라 할 것이며, 歷史的 服飾의 資料가 不足한 現狀에서는 風俗誌的인 接近을 試圖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北方系服飾」에의 關心은 줄곧 繼續되었으나, 바쁜 日程을 쫓아 쓰느라 많은 資料를 蒐集할 수는 없었다. 앞으로 資料를 더 수집하여 體系的인 檢討가 可能하기를 바라면서, 여기에는 위의 글뜻의 理解를 돕기 위하여 이번에 얻은 資料 중 몇 點을 地圖와 함께 곁들인다 (圖 1~9 참조).

#### Ⅳ. 服飾史教育의 課題와 展望

美國에서 服飾教育에 직접 참여하고, 服飾史 資料를 蒐集하면서 切感한 것 중 한가지는 우리 服飾史教育 내지는 服飾史의 視野를 좀더 넓혀야 한다는 것이었다.

비슷한 觀點에서 어떤 外國學者는 西洋服飾과 對稱되는 東洋服飾史를 定立하고, 이 둘을 묶어 世界服飾史를 構想해야 한다고 提唱하고 있다.<sup>(7)</sup> 服飾史의 編年조차 어려운 여러 地域을 包含하고 있는 東洋 또는 아시아服飾史의 統一的인 記述이 可能할지는 疑問이지만, 필자는 일단 服飾史와 服飾史教育을 分離해 생각하고 싶다. 우리나라 大學에서의 服飾史가 歷史學의 一分科이기 보다는 服飾學의 補助科目이라는 現實을 認識하기 때문이다.

이런 前提를 놓고 생각할 때의 服飾史가 갖는 意義는 “The Second Skin”의 저자 Marilyn J. Horn의 다음과 같은 말로 要約된다.

“…歷史學者들의 方法은, 時間의 흐름 속에서 現在하는 服飾現象의 解釋을 可能케 한다.……(그로 하여) 우리는 服飾樣式에 미치는 社會的 變化의 效果를 보다 바르게 풀이하고 豫測할 수가 있다. 現代의 스타일은…過去로부터 進化된 것이며,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變할지는 오늘날 그에 미치는 與件과 影響에 달린 것이다.”<sup>(8)</sup>

바꿔 말하면 服飾史는 服飾의 깊이 있는 理解를 위하여 不可缺한 것이다.

이 경우 重要的 것은 낱낱의 細部形態가 아니라 좀더 巨視的으로 본 服飾의 樣式이라고 생각

(6) H. Harald, *Mongol Costume*, pp. 186, 188.

(7) 杉田正年, 東洋服裝史論攷, pp. 25~29.

(8) Marilyn J. Horn, *The Second Skin*, Houghton Mifflin Co., 1975.

한다. 韓國服飾史에서 본다면, 우리와 같은 北方系樣式이 유라시아內陸에서부터 日本에까지 分布되어 있다는 데서 出發하는 것이다. 古代 우리 民族의 移動經路로 보아, 우리 上代服飾이 北方系일 것은 當然한 것이지만, 우리 民族이 차차 高溫多濕한 地域으로 南下하여 農耕社會로 定着하는 過程에서, 그것은 風土에 適應하는 變化를 보였을 것이 틀림 없다.

그 뒤의 服飾 變化에 있어서는 中國服飾의 影響을 無視할 수가 없으나, 우리 服飾史의 領域을 北方系服飾으로 擴大해 놓고 보면, 그 變化의 過程은 中國服飾의 一方的인 影響이 아니라, 中國服飾과 北方系服飾의 相互 交涉이라 볼 수가 있다. 中國 周邊民族의 服飾이 漢化되는 한편에서 中國服飾은 그들로부터 袴褶을 借用하여 胡服化하고 있는 것이 그 한 例證이다.

또 北方系服飾과 中國服飾의 對比에서 볼 때 北方系服飾에 대한 中國服飾의 影響은 地域을 따라 한결같지가 않다. 어떤 民族의 服飾은 完全히 中國樣式에 同化된 反面, 우리 服飾은 固有의 基本樣式을 維持했다. 우리와 日本은 다같이 唐服을 受容했으나, 그뒤 日本은 그 遺制를 變化시켜 北方系服飾과 전혀 다른 기모노를 成立시켰다. 이와 같은 變化過程의 比較는 우리 服飾의 特性을 理解시키는 好材가 될 뿐더러, 服飾 變動의 메카니즘(mechanism)을 깨우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中國樣式의 影響만이 아닌, 우리 服飾의 複合的인 變動要因을 想定하고 究明해야 한다. 「北方系服飾」에의 關心은 이런 데에서 意義를 찾을 수가 있겠고, 그런 뜻에서 韓國服飾史의 外延은 좀더 넓어져야 한다.

服飾史教育의 視野를 넓혀야 한다고 할 때의 또 한 側面은 服飾學은 많은 隣接科學에 聯關된다는 點에 있다. 잠시 꼽아도 그것은 人類學·考古學·社會學·心理學·經濟學·歷史學 등 社會科學 分野, 解剖學·生理學·物理學 등 自然科學 分野와 美術 등 藝術分野에 걸친다. 이런 脈絡에서 服飾史는 服飾學의 1分科요, 그 補助科目이 된다. 一部 論者의 主張처럼 歷史學의 一部이면서 純粹史學으로 그칠 수가 없고, 美術史의 領域에 完全히 埋沒될 수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服飾史教育은 隣接科學 分野의

史的 側面(historical aspects)을 보다 重視할 必要가 있다. 例컨대 服飾의 時間觀念을 가로 막대라고 한다면 바람직한 服飾史教育은 거기에 가로 막대를 걸친 「+」字 모양이어야 한다. 이 가로막대의 뜻은 服飾史의 空間的·學問的 領域을 더 넓힌다는 것이다. 이로써, 앞서의 引用처럼 現代服飾의 意義를 理解시키고 將來를 展望케 함으로써, 服飾에 관한 創意性を 키울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 V. 結 言

要件대, 服飾史教育은 服飾教育의 目的에 合致되어야 한다는 것이 滯美 1年을 뭉뚱그린 所感이다. 服飾教育의 目的을 明確히 하여 그에 따른 學問의 性格을 規定하고 지금의 實情을 돌이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服飾教育의 目的은 美國의 경우 服飾專門人의 輩出이란 點에서 아주 뚜렷하다. 앞서 紹介한대로 뉴욕대학교의 碩士課程은 服飾史를 主軸으로 하고 있거니와, 그 Bulletin은 ① Clothes Designers ② 文化史家 ③ 博物館 管理者 ④ 服飾史 研究家 ⑤ Costume Specialists ⑥ Theatre Designers 등을 志望하는 사람에게 適合한 코스임을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 服飾教育은 아직 이 點이 分明치 않지만, 머잖아 服飾教育에 대한 社會的 要請이 그런 方向으로 뚜렷해지며, 그때가서는 패션 디자이너에 그치지 않는 多樣한 career position이 열릴 것임은 누구나가 짐작하는 바일 것이다. 服飾教育에 參與하는 服飾史學徒로서도, 이런 變化에 對備하고 社會的 要請에 副應할 마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 참 고 문 헌

- 金基雄, 韓國原始古代美術, 서울: 正音社, 1977.  
 金元龍, 韓國美術史, 서울: 汎文社, 1973.  
 江上波夫, Eurasia北方文化의 研究, 山川, 1951.  
 角田文衛, 古代北方文化의 研究, 祖國社, 1954.  
 杉本正年, 東洋服裝史論攷, 古代編, 文化出版社, 1980.  
 \_\_\_\_\_, 世界考古學大系, Vol. 9, 平凡社.  
 Boroyka, G., *Scythian Art*, London, 1928.

Burnham, Dorothy K., *Cut My Cote*, Royal Toronto Museum, 1973.  
 Harald, Henry, *Mongol Costume*, Copenhagen, 1950.  
 Horm, Marilyn J., *The Second Skin*, Houghton Mifflin Co., 1975.  
 Landsdell, Henry, *The Costume of China*, London,

1800.  
 Payne, Blanche, *History of Costume*, Harper & Row, N.Y., 1965.  
 Rice, T.T., *The Scythians*, London, 1957.  
 Stein A., *Ancient Khotan*, 2 Vols, Oxford, 1907.  
*On Ancient Central-Asian Tracks*, London, 19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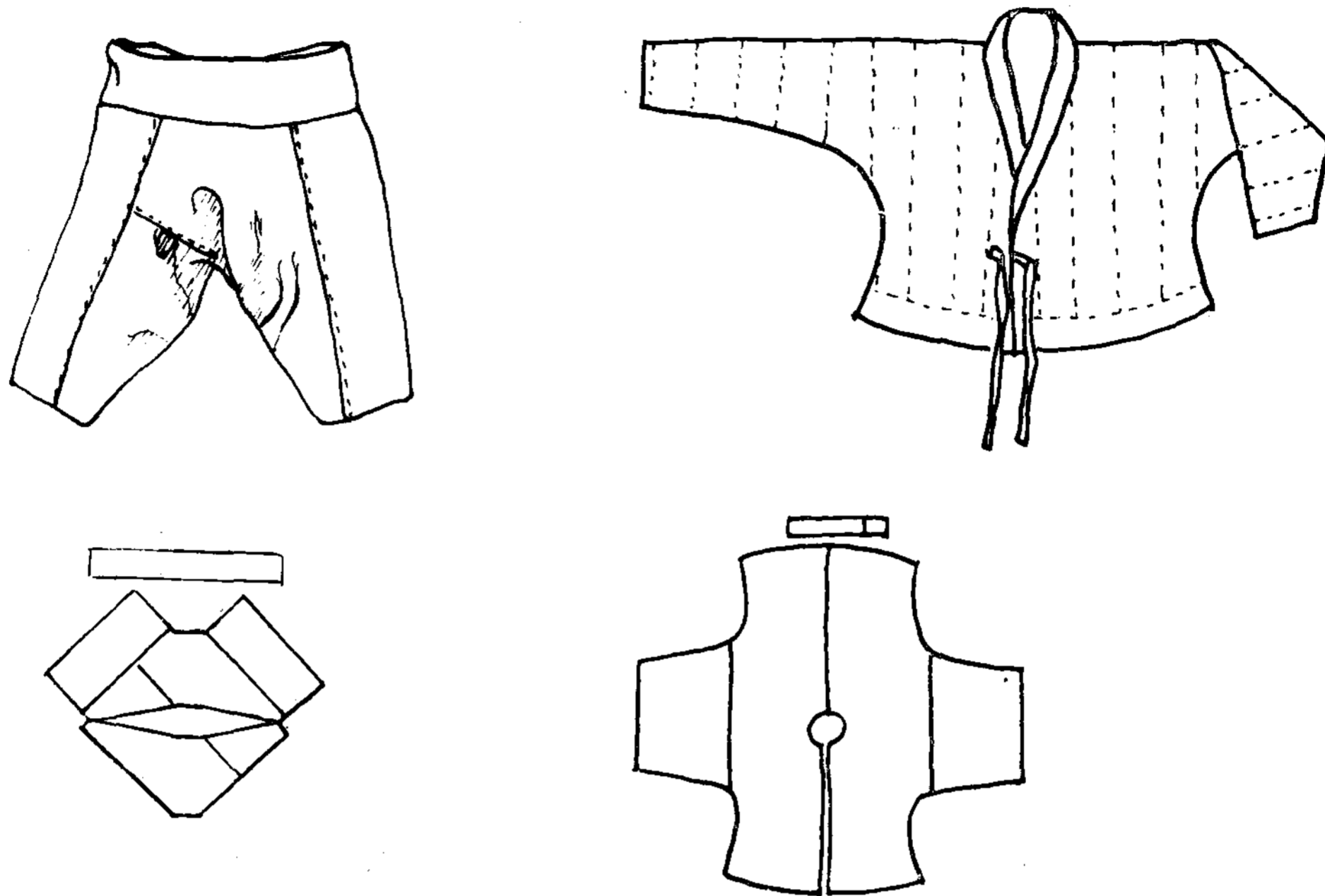


- ① 高昌遺蹟
- ② Noin Ula遺蹟
- ③ 바즈이루이크遺蹟

- G 아스타나
- H 龜茲
- I 樓蘭
- 包 호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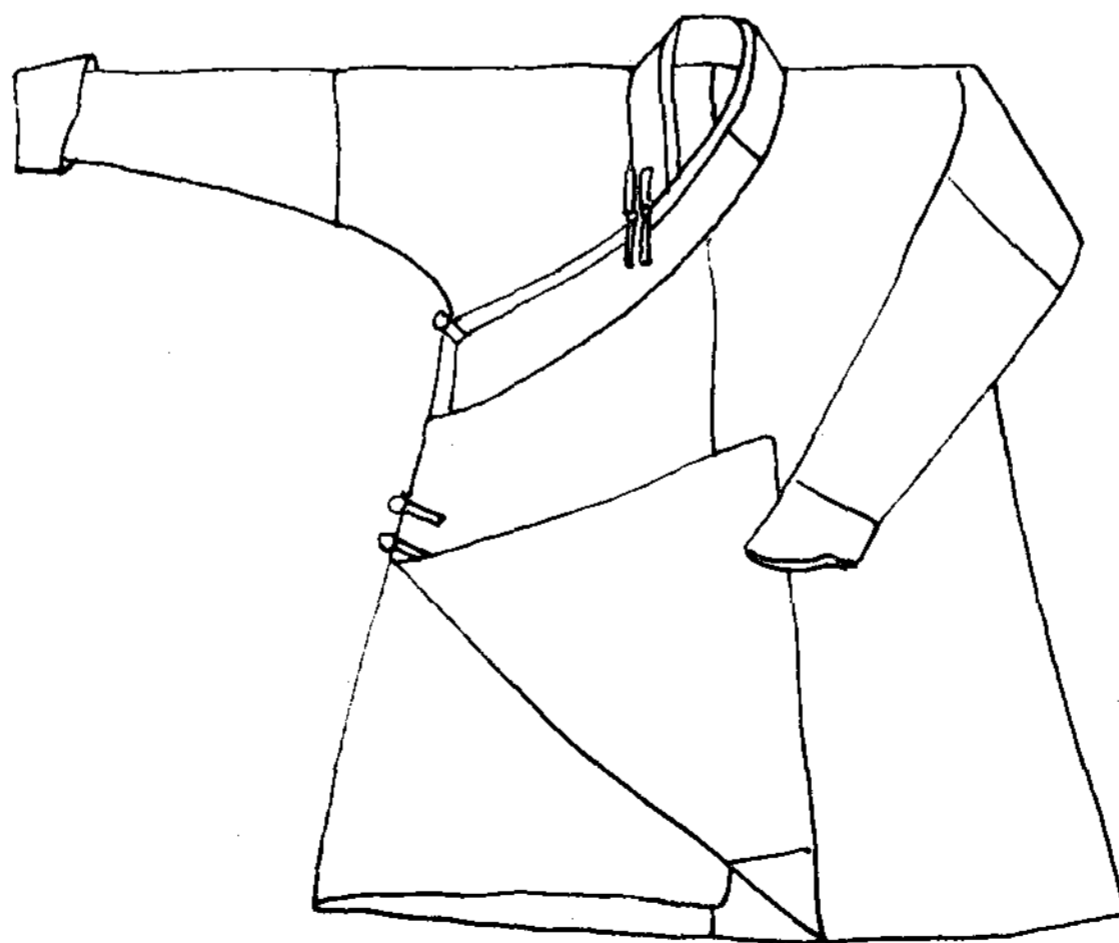
- A (도1, 2, 3)
- B (도4)
- C (도5, 6)
- D (도7, 8)

北方系服飾 發掘 遺蹟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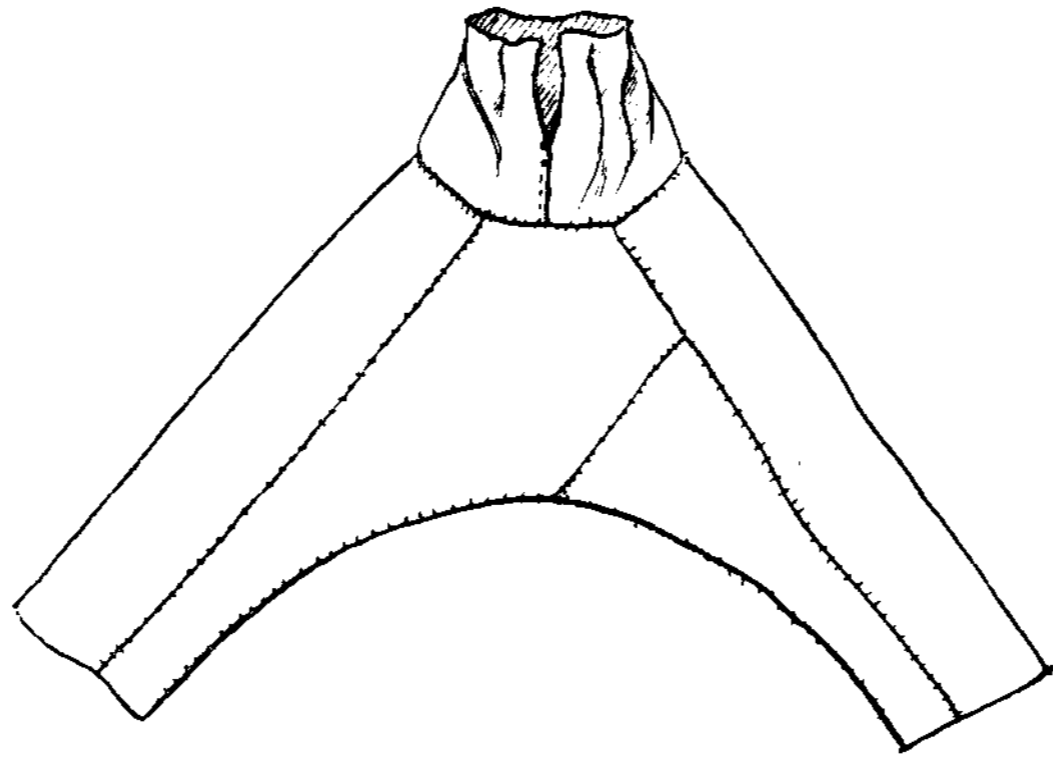
[圖 1] 蒙古의 袴와 그 展開圖  
(Mongol Costume, p.111)

[圖 2] 蒙古의 襦와 그 展開圖  
(Mongol Costume, p.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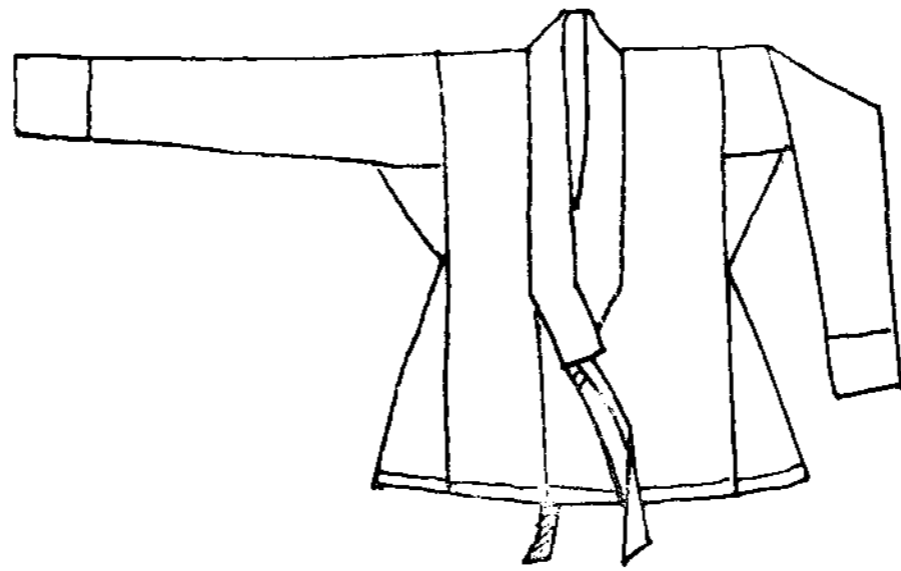


[圖 3] 蒙古의 袍(Mongol Costume, p.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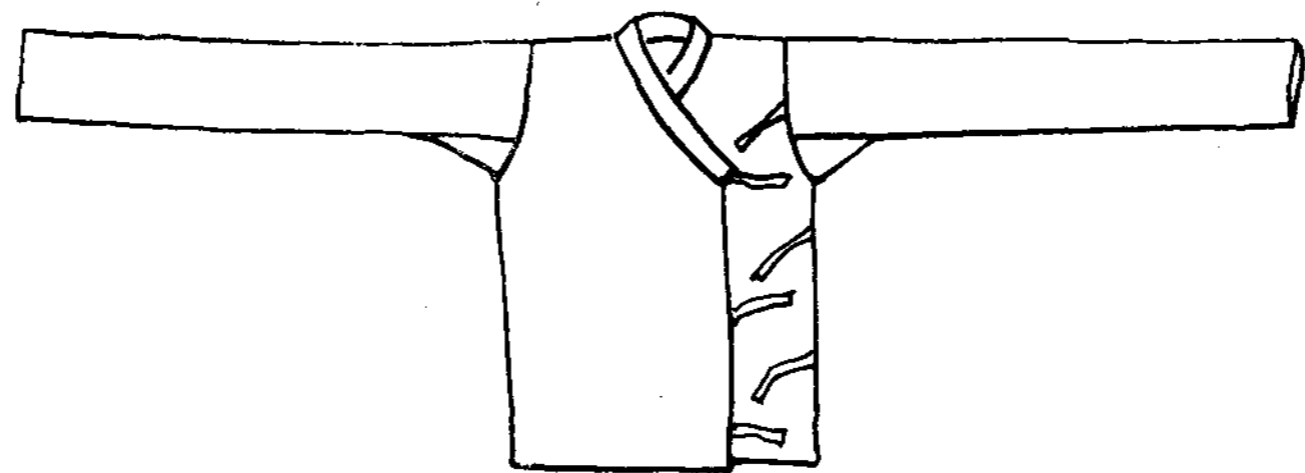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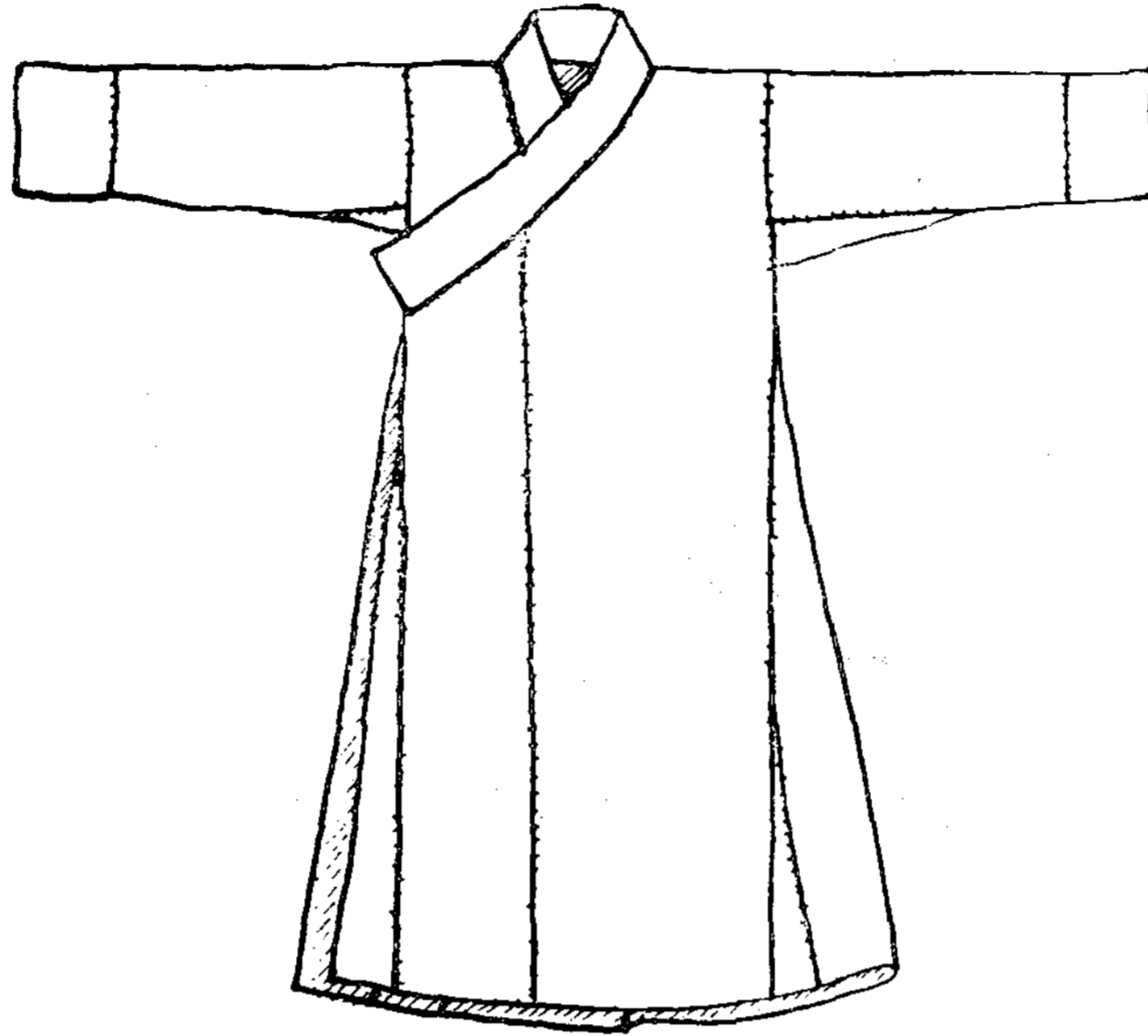
[圖 4] 中國의 袴(National Costumes, p.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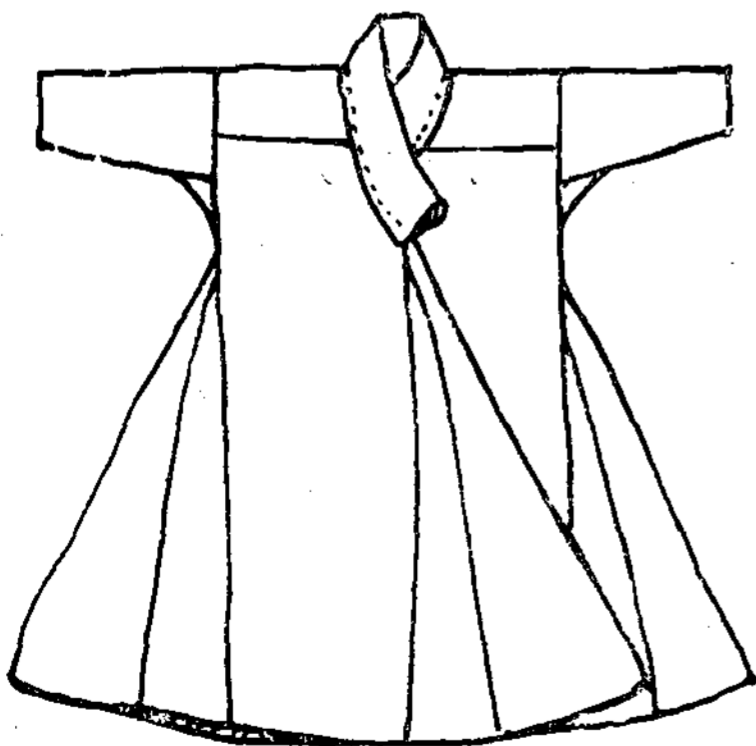
[圖 5] Indo-Chinese Peninsula의 襦(National Costumes, p.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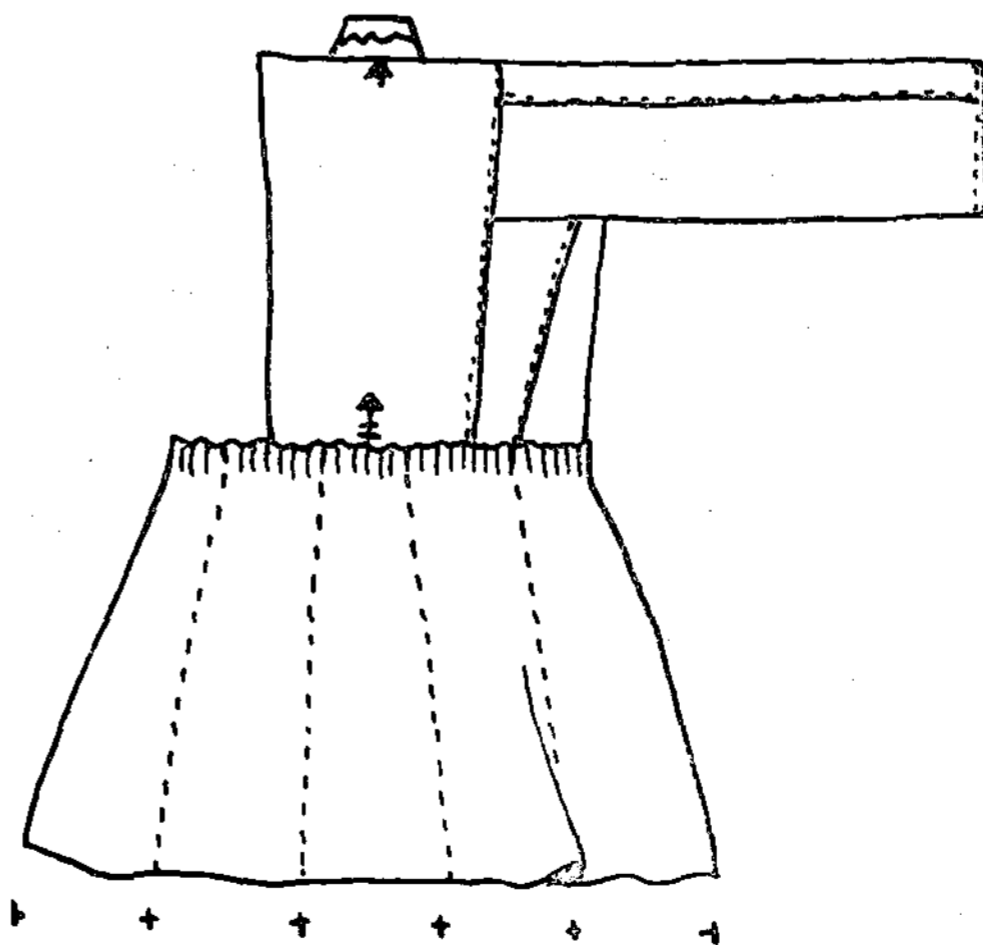
[圖 6] 인도인 의 襦(Oriental Costumes: Their Designs and Colors, pl. 94)



[圖 7] 티벳의 袍(Oriental Costumes: Their Designs and Colors, pl. 104)



[圖 8] 티벳의 袍(National Costumes, p.116)



[圖 9] 페르샤의 袍(Oriental Costumes: Their Designs and Colors, pl.83)